



시름의 농촌 들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된 10일 광주시 서구 서창들녘에서 쌀 시장 개방과 잇단 FTA 체결 여파로 시름에 잠긴 농민들이 막바지 나락 수확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한중 FTA 타결... 전남 농수축산업 年 수천억 타격

### 농도·수산업 비중 높은 전남도에 피해 집중 최저가격 보상제 등 피해 최소화 대책 시급

한·중 FTA 타결에 따른 농수산물 시장 개방으로 국내 농수산업계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도가면서 수산업 비중이 높은 전남도에 그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전남도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2·3·8면>

중국으로부터의 농수산물 수입액은 2008년 28억2200만 달러에서 지난해 47억1400만 달러로 5년 새 67.0%나 증가하고 있어 저가 중국산 공세가 본격화될 경우 전남도의 농수산업이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전남도의 주요 농수산물 품목이 양허 제외 대상에 포함되면서 예상보다 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낙연 전남지사와 전남도의회 의원들은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대책 수립을 촉구했으며, 지역 농어민들은 '농축산업의 사형선고'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축산 분야의 경우 발효 후 10년차에 전남도의 피해 추정치가 연간 4481억원, 수산 분야의 피해 추정치는 연간 3540억~5348억원에 이른다. 농축산 분야의 경우 전국 피해 추정



치(2조3585억원)의 5분의1, 수산 분야는 전국 피해 추정치(7532억~1조1379억원)의 절반에 달하고 있다. 이는 농촌경제연구원과 수산경제연구원이 분석한 것으로, 전 품목의 관세가 철폐됐다고 가정한 것이다.

농축산 분야 피해 규모는 한·미 FTA 피해액(1136억원)의 4배, 한·EU FTA 피해액(219억원)의 20배다.

다만 쌀, 보리, 고추, 마늘, 양파, 배, 포도 등은 양허 제외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 조업 대상품목인 조기(냉동), 홍어(냉동), 돔(냉동), 멸치(건조) 등, 조정관세 및 자원관리 품목인 꽃치(냉동), 농어(활), 민어(활어 및 냉동), 꽃게(활어 및 냉장), 고등어(냉장), 소라 등도 양허 제외에 포함됐다.

이 지사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농업인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제정 ▲주요 곡물 자급률 목표 상향 등 시책 추진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전남도의회 의원들도 "그동안 한·중

FTA 협상의 졸속 추진을 강하게 규탄하며 전국의 농어업인들은 협상을 당장 중단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음에도 타결을 선언했다"며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 등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대책을 제도화하는 등 후속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광주시 서구청과 영광군청에서 벼 아적시위를 벌인 전국농민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농수축산업의 사형선고'라며 강력 반발했다.

정약철 사무처장은 "농산물 가격이 바닥으로 추락해 농민들이 극심한 어려움에 내몰렸는데 거기에 한·중 FTA 타결 소식까지 들었다"며 "농어민들이 어떻게 이 상황에 대처해야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쌀·자동차 제외... 금융·통신·전자상거래 포함

### 한중 FTA 타결 내용

한국과 중국간 FTA(자유무역협정)가 30개월만에 전격 타결됐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오전 인민대회장에서 열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금년중 세부사안의 협상을 마무리한 뒤 FTA 협정문안을 작성해 양국 수석대표간 가서명하는 데 이어 내년초 관계장관급 정무차관을 거쳐 FTA를 발효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물론 양국 FTA가 발효하기 위해선 국내법적으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

청와대가 밝힌 합의내용을 보면 상품과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양국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총 22개 챕터에서 FTA가 타결됐다. 중국은 처음으로 금융과 통신, 전자상거래를 FTA에 포함했다.

상품의 경우 양국은 품목수 기준 90% 이상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는데 중국은 품목수 91%, 수입액 85%(1천371억 달러), 한국은 품목수 92%, 수입액 91%

(736억 달러)를 각각 20년내에 관세철폐하기로 했다.

반면 즉시 관세철폐의 경우 수입액 기준으로 중국은 44%, 한국은 52%로 한국이 다소 컸다. 자동차는 양국 모두 양허 제외였으며 LCD(액정표시장치)의 경우 10년 철폐로 합의했다.

농수산물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FTA 역대 최

저수준으로 합의됐다. 나머지 초민감품목(수입액 기준 60%)은 양허제도가 30%, 자율관세할당 16%, 관세감축 14% 수준으로 조정됐다.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또 고추와 마늘 양파 등 국내 주요 양념채소류와 쇠고기·돼지고기·사과·배 등 총 610여개 품목이 양허제외됐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등 한반도 역외의 공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특혜 관세를 적용받아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원산지 한국산으로 인정하도록 합의했다.

/연합뉴스

### U대회 운영비 대폭 삭감 내년 예산 3조8500억원 광주시 긴축 편성

복지예산 부담에 허덕이는 광주시가 광주국제유니버시아드 운영비를 대폭 삭감하는 등 내년도 예산을 긴축 편성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10일 "2015년도 예산으로 3조8500억원을 편성해 11일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광주시 예산은 올해보다 2321억원(6.4%)이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는 2106억원(7.3%)이 늘어난 3조104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15억원(2.9%)이 늘어난 7452억원이다. 재정자립도는 39.0%로 올해 36.8%보다 2.2% 개선됐으며, 이는 지역경제가 회복세로 접어들면서 지방세 수입이 올해보다 13.7%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급증하면서 내년 살림은 기존 2238억원에 추가로 623억원의 빚을 내 꾸려야 할 판이다. 실제 내년도 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은 사회복지 분야로 1조3940억원이 편성됐으며, 올해보다 1613억원(13.09%)이나 늘었다.

지원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됐던 광주시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724억2200만원과 학교급식지원 예산 13억6400만원 등도 전액 반영됐다.

민선 6기 공약사업을 이룰 신규 사업도 눈에 띈다.

여론조사 시스템 구축을 위해 10억원을 편성했으며, 자동차산업밸리추진위원회 운영비 4억원, 자동차 부품업체 역량강화 지원 사업비 5억원 등이 배정됐다. '차이나 프렌들리' 사업으로 7억3700만원 등이 편성됐다. 반면 내년 7월 광주에서 열리는 U대회의 운영비와 시설비 등은 대폭 삭감됐다. 이 때문에 지역 체육계 등에서 인건비 아시안게임처럼 부실운영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광주U대회 조직위가 요구한 운영비 691억원 중 392억원(56.7%)만 반영했으며, 나머지는 자체 마련토록 했다. 시설비도 요구액보다 14억원이 줄어든 543억원만 반영했다. 시는 또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중인 광주도시철도 2호선 관련 예산은 아예 반영하지 않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해원 선집 출판감사예배**  
11월 11일(화) 17:00~20:00  
울리데이인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  
제8회 해원기념강좌  
11월 12일(수) 10:40~14:00  
광산대학교 은혜관 3층 대예배실  
광산대학교 062)605-1000

**HERA**

끌어올리세요  
당신의 아름다움

헤라 모디파이어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헤라 모디파이어-탄력의 중심에 작용해 매끈하고 탄탄한 피부로 한 차원 올려줍니다  
이제, 당신의 아름다움에 사람들의 시선이 향합니다

MODIFIER  
Cell-Bio Layer Balm

ANTI-WRINKLE  
REVITALIZING  
FIRMNESS

\*유명 연예인이나 이모저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고객상담실 090-023-5454(수신료구급) www.hera.co.kr